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6월 27일(금)
(윤력 6월 3일)
Пятница
27 июня 2025 г.
№ 25 (1214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유즈노사할린스크, 제6회 극동 연극축제 개막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6회 극동 연극축제가 개최되어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축제의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극동연방관구의 우수 연극 10개 작품을 비롯해 러시아 대형 극장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극동 연극축제는 사할린주에서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데 이 행사는 극동지역에 연방 연극예술 발전 프로그램(지도 러시아 연방 국민배우, 민족극장의 예술감독 예브게니 미로노브)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사할린 주정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개별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다. 축제의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조성돼 최고의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유명 연극 연구가와 극장 대표들, 명성 높은 무대 장인들이 펼치는 강연에 참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교실에도 참여하고, 안톤 체호브의 희곡 작품을 주제로 하는 감독연구소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지난 23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제6회 극동 연극축제가 막을 올렸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러시아 전 지역들처럼 경제 내부구조 개혁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제28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본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논평했다.

올해 주제는 <공동의 가치 - 다국화된 세계에서 성장의 기반>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현 국내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국내 총생산(GDP)은 연평균 4% 이상 성장했다고 밝히고, 이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장구조는 비석유.가스 생산 산업의 국내총생산 특별 지표를 보면 탄화수소 생산 관련 산업의 영향으로 정돈되면서 2023년 비석유.가스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7.2%에 달했고, 2024년에는 4.9%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전체 국내총생산의 성장보다 훨씬 견고하다. 원자재가 경제적 활력에 기여하는 바는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다. 현재로서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사

할린주의 경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에 우리는 3,550억 루블리라는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한 가운데 지역총생산은 러시아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9.3%의 성장률을 보였다. 석유.가스생산과 관련 없는 주요 산업들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과학과 기술집약적 생산이 성장하고 있다.

탄화수소 채취 분야의 서비스 현지화를 위해 우리는 지난해에 석유.가스산업단지 1단계를 건설했다. 올해는 2단계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국내 독자적 기술 확보를 위한 중요한 현장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세계적 수준의 '사할린테크'캠퍼스를 건립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생의 거리가 완공되고, 내년에는 학술-교육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설립될 대학은 기업과 긴밀한 상호협력 속에 운영되며, 지역의 기획 아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투자환경의 새로운 품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건설

을 비롯해 새로운 기획들의 소통 확보에서부터 현재 시급한 사업과 모든 형태의 회계업무 및 공증지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전 분야 기업들의 사업비용의 최소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각 지역들, 기업들, 전문가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 속에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적, 투자적 활동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적으로, 각 마을에서도 대규모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이뤄가자."고 말했다.

국무위원회의 투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한 가운데 건설, 가스 및 전력망 연결에 대한 허가발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해야 하고, 2023년까지는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꼭 2배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1997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러시아 대통령의 후원과 참여로 개최되었고, 2025년에는 140개국에서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알아라. 사랑하라. 자랑하라. 번성하라!' 청년의 날 맞아

6월 28일 사할린주가 러시아 전역과 함께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가운데 올해는 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의 주요 주제는 애국심, 사회활동,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다.

2025년 러시아에서 청년의 날은 <알아라. 사랑하라. 자랑하라. 번성하라!>라는 새로운 표어로 기념한다. 사할린주도 이러한 표어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몇 개의 행사를 진행하고, 전통적 주요 행사는 가린 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웨트흐네에 호수 부근에서는 창조산업 구역이 조성되어 사할린 디자이너들의 패션컬렉션 '사할린의 원소' 패션쇼가 열리고, 창조산업 발전에 따라 '아트-마야크' 청년상을 시상한다. 고카트 트랙 부근 행사장은 애국 구역이 되어 12시부터 19시까지 전술의학, 위장망과 생존 팔찌 제작, 수호 인형 만들기, 즉석 건식 군인식량, 건식 샤워 등에 대한 활동교실이 진행된다. 청년의 날에 유리 텐트는 교육 행사장으로 12시부터 18시까지 사할린 국립대와 지역 중등교육기관이 지역 졸업반 학생들에게 더욱 인기 있는 일련의 직업 분야에 대한 활동교실을 연다.

<사할린의 여름>행사장, 댄스장,

스케이크장 등에서는 스포츠를 즐기는 주민들을 기다리는데 이 구역은 스포츠 행사 구역으로서 거리 문화 및 스포츠 '카르도' 경연의 지역 단계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위르크 아웃(스트리트 워크 아웃: 공공 시설의 철봉, 평행봉에서 하는 스포츠)', '디제잉', '힙합', '자전거 모토크로스', 킥보드 등의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동시에 '최고들의 활동'은 웨트흐네에 호수 뒤편 행사장에서 전통적으로 대규모 교육행사를 열어 '두뇌싸움' 지적 게임과 집안 인테리어를 위한 독특한 장식에 대한 활동교실, 다양한 보드게임을 펼친다. 음악 분수대 부근에서는 <에코 시스템 (생태계)> 행사장이 열리며, <선의 구역>이 운영되어 사할린주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자체 활동을 소개하고, 모두를 위한 활동교실을 열어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자들 신분의 특권을 공유해볼 수 있다.

축제조직위는 방문객들을 위해 저녁 프로그램으로서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미니 스마트 스피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등을 비롯해 협찬이 제공하는 선물을 준비했다.

청년의 날 축제의 절정으로 화려한 공연이 전통적으로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저녁 19시에 열린다.

새고려신문

2025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6월 28일은 청년의 날

도전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

러시아에서는 매년 6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기념한다.청년정책법에 따라 러시아에서 청년은 14세에서 35세까지의 사람들을 말한다.

청년의 날을 앞두고 본사 배순신 기자는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한민족 문화와 전통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얘기를 들어보았다.

신 막심[한국 이름 신정호]:

- 저는 15살이고,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9학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창작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연극, 무용(케이팝, 힙합), 예술적 낭송, 보컬입니다. 또한 시를 쓰기도 하고, 음악 트랙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와짐 폴리친스키 선생님의 지도 아래 대나무 검을 사용하는 검도를 배웠고, 사할린주 검도대표팀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외에도 체스, 색소폰 연주,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지역 오프라인-



자로서 자주 초대받으며,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 내레이션을 맡은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연극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및 전 러시아 대회와 축제 경연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아요. 2024년에는 '시리우스' 전국 교육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유명 배우와 교육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리 알렉산드르 예술 감독의 극단 '테아트르 리(ТеатрЛи)'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무대 외에도 사진 및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이 많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사할린주 심리학자

협회 스테블란스카야(차) 울리야 니콜라예브나 선생님 덕분에 파트타임으로 영상제작자로 활동하고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행사와 인터뷰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연극대학에 입학하여 극단에서 활동하고,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여행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가족, 선생님, 친구들의 응원인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성장의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의 핵심적 가치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할린에는 창의적인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한국 방문도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며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역사를 알아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할아버지는 재능 있는 기술자이자 운동선수이셨고, 사할린에서 많은 건축물을 짓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재봉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신 막심 학생은 2024년 10월에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러시아어 에세이 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은 작품을 예술적으로 낭독했는데 그때 관객들은 그의 연기에 놀라워하며, 반응도 뜨거웠다.

전 막심:

- 올해 저는 16세이고, 아니와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7세 때 트로이츠코예 마을로 이사해 거기에서 7년간 살았어요. 14살이 되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양산은 부산 근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양산에 살게 된 이유는 거기에 영주 귀국하신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적응에는 약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어를 잘 몰



라 많이 힘 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한국어로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학교와 한국 학교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9학년 때 학업 부담이 커져 한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복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 친구는 아직 사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말을 하는 동료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죠.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학교는 러시아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육 기간입니다. 러시아가 11년인 반면 한국은 12년제입니다.

취미는 배구와 요리입니다. 특히 다양한 디저트와 달콤한 간식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디저트 만드는 법은 직접 스스로 배웠고, 지금은 제과과정에 꼭 등록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 요가축제에 수십 명의 주민 모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연례 요가축제에 내면의 균형과 신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주민들 수십 명이 모였다.

'러시아의 스포츠'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는 요가 활동만 아니라 희귀한 요가음악으로 자아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올해 요가축제 주최 측은 고대 요가 수련을 제안하지 않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가에 중점을 두었다. 주최 측 관계자인 파벨 두딜롭스키는 "올해 요가축제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더 잘 알아보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에 보다 부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실제로 풍성하고, 다채로웠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수련에서 자아를 체험하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았다. 특히 명상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헵(hang)과 두둑(duduk)과 같은 매혹적이고 희귀한 요가 악기 연주자들의 공연은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축제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제공했다. 어떤 참가자들은 스탠딩 볼의 소리에 맞춰 필라테스를, 자작 체조나 창의적 감성의 뉴로그래픽(신경그래픽: 심리치료를 위한 그림그리기) 등으로 활동적인 수업을 선호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내면의 너를 사랑하라!'와 '다도(茶道:차를 다려 마시기까지의 예법)'와 같이 깊은 주제의 강연에 참여했으며, '요가 수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는 제목으로 요가 수련이 주는 감동적인 짧은 강연을 듣기도 했다.

공동활동으로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유쾌한 추억과 새로운 지식을 쌓을 뿐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아름다운 한 조각을 남기고자 시 공원에 수국꽃을 심어 축제는 아름답고, 상징적으로 마무리되었다.

Фестиваль йоги собрал десятки островитян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оисках внутреннего баланса и физического здоровья десятки человек собрались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йог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едшее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порт России», предложило участникам не только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н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глубже погрузиться в мир самопознания под звуки ред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этом году решили с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доступности йоги для каждого, независимо от 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б этой древней практике.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мы больше адаптируем как место, где можно поработать и узнать больше о своём здоровье, как физическом, так и духовном," — рассказал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авел Дудилковский.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была насыщена и разнообразна. Гости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азличных практиках, но и насладиться необычной атмосферой. Особым украшением стали живые выступления музыкантов, играющих на таких редких и завораживающ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как ханг и дудук, чьи мелодии создавали особое медитативное настроение.

Фестиваль предложил множество площадок на любой вкус. Одни участники предпочли а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пилатес под звуки поющих чаш, авторскую гимнастику или творческ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нейрографику. Другие же с интересом посетили лекции на глубокие темы, такие как «Любовь внутри Тебя!» и «Путь Чая», а также прослушали вдохновляющие мини-лекции от практикующих йогов на тему «Как практика Йоги повлияла на мою жизнь».

Красивым и символичным завершение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совместная акция —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участники высадили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сты гортензии, оставив после себя не только прият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и новые знания, но и частичку красоты, которая будет радовать горожан.

유즈노사할린스크, <깨지기 쉬운 모서리>도자기 공예 전시회 열려

6월 19일(목) '마야크' 아트센터에서 사할린 도자기 공예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취약성(깨지기 쉬운)'이란 개념으로 연합한 사할린 도자기 공예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깨지기 쉬운 모서리> 전시회에 전문 도예 장인을 비롯해 어린 도예가들도 참여했다.

<깨지기 쉬운 모서리> 기획은 사람과 자연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독특한 사할린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전시회의 중심 개념에는 조화와 창조와 물질과 허무에 대한 인간적 열망의 은유가 내포돼 있고, 도자기 작품은 내구성과 깨지기 쉬운 취약함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섬세한 도자기 꽃병과 등대의 램프는 순수한 주제로 감동을 주고, 기묘한 모양으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전시회는 전문 도공인 예카테리나 사이구쉬키나와 알

료나 예브도키모와, 알렉산드르 호왈락의 작품들을 비롯해 유.청소년회관의 학생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최연소 참가자는 8세이다.

전시회의 중량감 있는 주요 작품들은 예카테리나 사이구쉬키나 도공의 꽃병과 장식 접시로 이뤄졌고, 뿐만 아니라 바다사자, 천사상, 커다란 금속 구조물에 배치된 규모가 있는 빅코브의 실개천도 만나볼 수 있다. 예카테리나의 작품들은 경쾌하고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숨을 쉬는 듯하다.

도자기 공예 작품들과 함께 <깨지기 쉬운 모서리> 전시회에 회화와 삽화, 장식품, 애플리케이션 작품들도 선보였다. 작품들은 아주 다양한 소재들로서 털실, 채색된 물고기 가죽, 나무, 비즈(구슬)들로 만들어졌다. 모두가 아는 등대, 동물, 식물의 모양은 소수민족 원주민의 이야기와 안젤라 무브칙의 시와 블라디미르 상기의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으로 나란히 전시되었다. 모든 작품들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전시회는 '마야크' 지하 전시관에서 열리며, 관람객들은 누구나 경이로운 도자기 공예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 입장은 무료이고, 전시회는 7월 27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된다.

Выставку мастеров керамики «Грани хрупкого»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четверг, 19 июня,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ой керамики. В экспозицию вошли работы различных островных мастеров, объединенные идеей хрупкости. В создании выставки «Грани хрупкого» поучаств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профессионалы, но и юные творцы.

Проект «Грани хрупкого» стал отражением особенной островной философии, в которой тесно переплелись человек и природа. В идейн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ки лежит метафора стремления людей к гармонии, созданию, единением материального и эфемерного. Изделия из керамики выдерживают тонкий баланс между прочным и хрупким. Хрупкие керамические вазы и светильники-маяки трогают наивными сюжетами и поражают причудливыми формами.

Экспозиция состоит из рабо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ерамистов — Екатерины Сайгушкиной, Алены Евдокимовой, Александры Ховалыг — 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амому юному ее участнику всего восемь лет.

(8면에 계속)

자신 삶과 꿈에 대하여

저의 꿈은 제과점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성격이라 수줍음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 이번 여름방학때 막심은 잠깐 사할린으로 와 있다. 그의 사촌 누나 레라의 말에 따르면 막심은 평소에 조용한 성격에 산책을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처럼 비디오 게임 좋아하며,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요리와 제과를 굽고, 가족이 필요할 때는 항상 곁에서 돕는다고 한다. 여름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하고, 친구들과 교회도 다니며, 때론 제과와는 다른 언어학을 배우려고 한다고 한다.

이 제니스 :

- 현재 23살이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 2 김나지아 9학년을 마친 후, 경연을 통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부설 학교인 김나지아에 선발되어 진학했습니다. 다음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전공해 학사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러시아 외무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국제 정치 컨설팅’ 석사 과정을 우등으로 마쳤고, 곧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사회활동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2년간 ‘연합 도시들’ 팀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돈바스, 벨고로드, 쿠르스크지역 주민



정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 분야를 미래 전공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분야에 완전히 매료되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정치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학문의 폭이 넓고, 다양한 형식의 기획들이 있어 일상이 결코 단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독서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지식과 배움’은 제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흥미롭고, 미지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문화와의 연결을

들에게 필요한 물품, 구호품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은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계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고, 한국 정치와 현대사 공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생 잡지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 전통, 세계관, 그리고 문화에 대해 알리려고 합니다.

올여름에는 저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청년들과 교류하고, 아버지 가족의 역사적인 고향인 경상북도도 방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 전문 분야인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깊이 빠져 있으며,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바로 실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래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며, 계획한 대로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려고 노력합니다.

* 신 막심·전 막심·이 제니스 학생들이 자신을 찾으려는 열망과 열정과 호기심으로 선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청년다운 이들의 맘은 아름답다.

늘 찾고, 두드리고, 열어가는 청년들의 동력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들이 찾아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아도 늘 극복하는 법을 배워 원하는 높은 곳에 이르길 응원한다.

6월 28일은 청년의 날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전라도 가시내 / 이용악

얼룩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옥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훔쳐온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복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 속에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해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가 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제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정음 분이신데, 부안에서 시집살이, 그리고 서울에서 참 오래 사셨지요. 예전에는 사투리도 제법 잘 구사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 늘 그 말맛이 참 정겹기도 하고, 재미있어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생각이었는데, 역시 안 쓰시면 까먹는가 봐요. 어느 순간, 서울 말씨, 그리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로 바뀌시더라고요. 저야, 정치라면 냉랭할 정도로 무관심한 자라 이런 표현은 별 의미를 지닐 수 없겠지만, 어찌나 투자한 강남의 아파트 덕에 나름 그 쪽으로 기울어지신 건 아닐까, 종종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우파도 없고, 좌파 같은 것도 따로 없는 것 같던데. 제 시선에서 볼 때에는 말이죠.

말의 맛은 하나의 요리나 문화라고 하기보다 ‘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철학을 뛰어 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표현이 적당하겠지요. 저 멀리 전라도에서 팔려온 어느 여인에게 연민을 취하는 시인의 정서가 제가 살아보지 못한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은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저는 원래가 행운아여서, 이제 이 원고를 보내고, 불과 20분 남짓한 거리, 어머님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출발할 생각인데요. 요즘 점심무렵에는 어머님과 추어탕이나 찜통어탕 맛집을 탐방하는 즐거움이 쏙쏙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너무 바쁜 편이긴 한데, 어머님께는 무조건 자주 찾는 걸, 목표로 잡았거든요. 밤새워서 원고 쓰고, 아침 일찍, 어머님 댁에 가서, 그제서야 잠부터 때려 불고 보는 거지요. 점심 무렵 꺼져. "Будем благодарны нашим родителям!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서울에서 허진원)

'와일드베리스&루스'유통기업, 사할린에서 물류센터 건립

6월 18일 - 21일까지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에서 '와일드베리스와 루스' 유통기업이 사할린주에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와일드베리스'의 창립자이자 '와일드베리스와 루스' 통합기업의 김 타치야나 회장이 협약 문서에 조인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중요한 사업행사 중 하나로 1997년부터 매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고 있고, 2006년부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참여와 후원 아래 개최되었으며, 2024년에는 총 6조 4,920억 루블리에 달하는 1천70건의 사업이 체결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와일드베리스와 루스'기업 회장과 사할린주 정부와 공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편리한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극동의 다른 지역들을 비롯해 러시아 중부 지역과도 안정적인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신속하게 구매품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사소해보일지라도 이러한 것이 이 지역에 계속 살지, 국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진출을 꾀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일상의 소소한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이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와일드베리스와 루스'통합기업이 사할린주에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받기며, 사할린 주민들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에 건

립될 '와일드베리스와 루스'물류센터는 러시아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물류센터가 된다.

'와일드베리스' 창립자이자 '와일드베리스와 루스' 통합기업의 김 타치야나 회장은 "사할린 지역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사할린 지역뿐 아니라 극동지역 전체의 주문상품 배송의 기회를 현저히 확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국내 가장 외진 곳에서도 최고 수준의 품질 높은 물류서비스 제공을 강조해왔다. 이 성공적인 물류센터 건립 기획은 상품 배송의 시간을 단축하고, 주내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와일드베리스와 루스'통합기업은 총 300만㎡의 면적에 13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50만㎡의 물류창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할린주정부 자료)



안산 사할린동포 귀국 25주년 행사... "역사 잊지 않고 보듬겠다"

안산시가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20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고향마을복지관에서 열린 행사는 아픔과 인내의 세월을 견뎌온 이들을 향한 깊은 감사와 연대 메시지를 담았다.

1930~40년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 그리고 긴 세월을 지나 2000년에 그 중 일부가 '고향'이라는 이름의 공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에 정착했다.

25년이 흐른 오늘 안산에는 925명의 사할린 1세대 노인들이 고국의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행사에는 이민근 시장과 사할린동포 200여 명이 자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식전 행사와 축하 공연, 기념사가 이어진 자리에서 이 시장은 "

고국으로 돌아오신 어르신들의 삶 자체가 역사의 산 증언"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안정된 일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호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28 июня – День молодежи

О себе, о своих мечтах и планах

В последнюю субботу июня в России отмечается День молодежи. В России под молодежью считаются лица от 14 до 35 лет.

Сегодня мы решили представить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уже определились с тем, чем хотят заниматься, для которых важна корей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в их жизни.

Син Максим:

- Мне 15 лет, я учусь в 9 классе школы №2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С детства люблю творчество.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 театр, танцы (k-pop, hip-hop),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слово, вокал. Я также пишу стихи, записываю музыкальные треки.

Три год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олицинского Вадима Александровича занимался Кендо - это фехтование на бамбуковых мечках, входил в сборну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ещё в разное время пробовал себя в шахматах, игре на саксофоне, гончарном деле и других интерес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Также участвую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В этом году меня избрали президентом областной очно-заочной школы «Лидер». Кроме того, меня часто приглашают ведущим на крупные городские и обла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анимаюсь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Недавно я озвучивал проект для слабовидящих людей - это был важный и ценный опыт.

Мои наи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е успехи - в театральной сфере. Я - победитель и призёр областных 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и фестивалей. В 2024 году прошёл отбор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мену в "Сириус", где занимался с известными артистами и педагогами.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моему наставнику Фетицовой Екатерине Александровне.

Также я состою в труппе «ТеатрЛ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Александра Л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никальный опыт для меня.

Помимо сцены я увлекаюсь фото- и видеосъёмкой, занимаюсь монтажом. Участвую и побеждаю в конкурсах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в этой



сфере. Благодаря рекомендации психолога Юлии Николаевны Ча (Стеблянской), я начал подрабатывать видеографом, снимаю мероприятия и интервь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После школы мечтаю поступить в театральный вуз, играть в театре и сниматься в кино. Ради этого учусь, развиваюсь, работаю над собой.

Радость и вдохновение мне приносят путешествия. Я люблю узнавать новое, открывать для себя другие культуры. Очень вдохновляет поддержка близких: моей семьи, педагогов, друзей. Я счастливый человек, и мне повезло с окружением. Уверен, что именно окружение даёт нам силы для роста.

Основная моя ценность - не бояться пробовать, действовать, искать своё дело.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ляются всё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ёжи и это здорово! Я рад быть частью этих изменений. Главное - не сдаваться на полпути и всегда стремиться вперёд.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кореец. Люблю бывать в Корее, обожаю национальную еду, уважаю традиции и с интересом слежу за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Мне нравится узнавать историю своей семьи. Например, мой дедушка был талантливым инженером и спортсменом, участвовал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ногих объ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А прабабушка трудилась на швейной фабрике, для меня это тоже важная часть истор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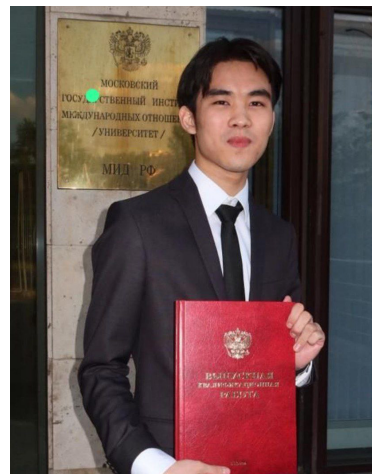
Чен Максим:

- Мне 16 лет. Родился в городе Анива. В возрасте 7 лет переехал в село Троицкое и жил в селе на протяжении 7 лет. В возрасте 14 лет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переехал в Корею. Живу там уже почти 3 года. Проживаю в городе Янгсан. Этот город находится вблизи Пусана. Сюда мы переехали, чтобы быть поближе к дедушке, который переехал сюда по программе ПМЖ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Я одновременно учился в двух школах: в русской и в корейской. Из-за большой нагрузки в 9 классе мне пришлось покинуть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Но сейчас планирую поступить туда вновь.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жить в Корее, но пока что у меня нет друзей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з-за языкового барьера сложно общаться. Общаюсь с русскоязычными корейцами. Адаптация в Корее заняла у меня примерно год. Поначалу было очень непривычно из-за незнания языка, но постепенно я свыкся, начал понимать, что мне говорят на корейском.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не силь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русских. Самое главное отличие в сроке обучения. Если в России учатся 11 лет, то в Корее 12. Там можно оставлять учебники в классе, а также свою сменную обувь. Обед всегда бесплатный.

Так как живу в Корее, конечно же, изучаю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и язык. Увлекаюсь волейболом и кулинарией. Очень люблю готовить разные десерты и сладости. Десерты готовить я учился сам. Сейчас очень хочу пойти на



занятия по кондитерскому делу.

У меня мечта - открыть свою кондитерскую. Но перед этим хотел бы по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натуре я добрый человек. Характер у меня мягкий, можно сказать застенчивый, но, когда дело касается принципов, я становлюсь более уверенным.

Дополнение от Леры, двоюродной сестры Максима:

- Максим по жизни скромный, любит много гулять и играть в видеоигры. Дома много готовит и выпекает для семьи, когда надо, всегда поможет. Летом на каникулах не хочет сидеть дома, ищет подработку.

В Корее часто общается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и ходит в церковь. Хоть корейский и английский даются ему не так легко, думает идти учиться на лингвиста.

Ри Денис:

- Мне сейчас 23 года, учился в гимназии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9 классов), 10-11 класс обучался в Москве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гимназии МГУ, куда прошёл по конкурсу. Получил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Политология" в Высшей школе экономики. Сейчас заканчиваю магистратуру РГГУ МИД России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онсалтинг», защитив диплом с отличием.

Из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ых проектов: вот уже 2 года участвую в гуманитарных миссиях команды «Союз городов» по доставке помощи жителям Донбасса, Белгородской 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ей.

С выбором профессии определился неожиданно для себя,

когда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школьн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политологии, хотя до этого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 Тем не менее, меня так это увлекло, что сейчас даже 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 себя в другой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Больше всего в политологии нравится широта дисциплины и разноформат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ревращаю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овседневную рутину.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я люблю читать, узнавать что-то новое и стараться всячески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мыслительный горизонт. Познание является для меня главной ценностью жизни: пока ты учишься, пока ты умеешь воспринимать новое, 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живаешь жизнь, а не просто существуешь. Понятное дело, что знать все невозможно, но и оставить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когда во всем мире окружает столько интересного и неизведанного.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стараюсь поддерживать свои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потихоньку 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чень нравятся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ую политику и современную историю Кореи, и даже готовил публикации в студенческом журнале о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ытаюсь рассказывать своим друзьям и знакомым о различных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особенностях мировоззр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Этим летом даже получилось пройти конкурс для молодеж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т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корейцами (ОКСС) на поездку в Корею, где я надеюсь наладить контакты с молодыми корейцами со всего мира, а также посетить провинцию Северный Кенсан -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моей семьи по отцовской линии.

В дальнейшем я планирую работать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заниматься политическим консалтингом. Я по-настоящему живу этой сферой, а за годы обучения накопил довольно много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которые не терпятся воплотить в жизнь. По характеру я очень методичный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тарается следовать намеченным планам и доводить до конца любую начатую работу.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В конце мая группа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из г. Макаров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Ко Ен Сун (Светлана Яковлев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К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иректора Мак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вершила поездку на остров Чеджудо.

Сказка, которая стала явью

Так бы я описала все, что произошло с нами за 5 дней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до. Поездка стала самым ярким началом лета,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ас подготовили потрясающую программу приключений. Каждый день начинался с 7:30 и заканчивался в 22:30: мы были в движении, в ритме все 24 часа в сутки!

Мы посетили ко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 котором нам посчастливилось погладить и покормить лошадей; мы гуляли вдоль скал и берега, об который бились волны; мы катались на аттракционе и кричали так, что слышал весь остров; мы пили смузи среди пальм и тропических лесов; мы катались на яхте, управляли штурвалом и ловили рыбу; мы сами катались на лошадях; мы посетили невероятно красивый и большой океанариум, в котором впервые в своей жизни увидели акул и скатов; мы выступили в самом центре городе Чеджу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аждый день был не только увлекательным приключением, но 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 экспериментом! Мы завтракали, обедали и ужинали в самых вкусных ресторанах, на шведских столах и колоритных кафе!

Больше всего нам запомни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ждения Вики Ко, которое проходило на яхте. Наши друзья приготовили вкуснейшие торты, свежевыжатые соки и фрукты. Встретить 17 лет в такой неповторимой обстановке и среди близких друзей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торую подарили нам наши друзья!

Забота наших друзей, непрерывно окутывавша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 это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мы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домой! Объятия, переживания, внимание к каждому нашему к слову так поразили нас, что моментами было неловко, что нам уделяют столько внимания.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от наших друзей - это не просто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 это история о нашей дружбе, которую мы будем хранить и со слезами счастья вспоминать!

Я не знаю, как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отому что все, что делали наши друзья для нас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х дней — это проявление такой большой любви, которую мы не всегда ощущаем в родном городе. Для нас наши друзья - это большая семья, которую мы всегда ждем в го-



сти!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им за такое насыщенное и памятное начало лета!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Светлане Яковлевн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быть частью этой семьи и прилетать в гости к нашим друзьям! Я, будучи студенткой и обучаясь в сердце России -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и подумать не могла, что смогу оказать на Чеджу вновь.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Светлане Яковлевне, что именно она продолжает сохранять и укреплять связь с друзьями-корейцами, и что он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м, детям из маленького городка, посмотреть на мир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акими порядочными и многоуважаемыми людьми, с которых хочется брать пример,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себя сами! Смотря на них, я понимаю, что сколько бы человек не имел, важно и нужно оставаться человечным! Только это по-настоящему ценно и только это сохраняет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и дает толчок к реализации больших целей. Благодарность ближнему, благородство, преданность и верность, трудолюбие и страсть к любимому делу - та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обладают наши друзья-корейцы, и этому я учусь у них!

Алёна Рашкевичус,
студентка Новосиби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жительница города Макаров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Жертв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заслуживают достойной компенсации и уважени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звал пересмотре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отношении тех, кто понёс особые жертвы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отмети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силий для достойного выражения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24 июня на 27-м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подчеркнул: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вопрос первостепенной важности, но и часть повседневной реальности, поэтому её значимость может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не так остро. Однако речь идёт о защите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ценностей наше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говорить об этом никогда не бывает лишни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же отметил: «Гораздо важнее побеждать без войны. Наиболее проч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 это мир, при котором отпадает сам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вооружён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Обязанность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мира лежит на политике, но когда избежать конфликта не удаётся, на передовой оказываются, как правило, простые и незащищённые граждане».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25 июня - годовщина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 станет днём, когда народ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спомнит тех, кто принёс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жертвы во имя защиты Родины.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вёл первое совещание с ключев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23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овёл своё первое совещание с главн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В центре повестки дня оказались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экономик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ефор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ак сообщил на брифинге старший секретарь по коммуникация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Ли Гю Ён,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ошедшем в резиден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доклады по 11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реди них —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бюджета н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и 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е работы (НИОКР),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и самозанятых, а также судебная реформа. Президент поручил принять более активные и своевременные меры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оборонной сферах. Отдельно о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рост валютного курса и цен на нефть на фоне нестабиль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В отношении бюджета на НИОКР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эффектив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и обеспече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автономии. Также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выработать реш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 снижению долговой нагрузки на малые предприятия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вещание с ключевыми советниками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м форматом, в котором участвуют президент,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таршие секретари,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бло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планирует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совещания регулярно —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и четвергам.

Прокуратура подала запрос на выдачу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Юн Сок Ёля

24 июня специ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Чо Ын Сок, расследующий дело о «введени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дал экстренный запрос на выдачу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Юн дважды не явился на вызов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на вызов спецпрокуратуры 19 июня, тем самым четко выразив намерение игнорировать дальнейшие вызовы. Дело перешло к спецпрокурору 23 июня и, учитыв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епрерывности следствия, он подал запрос на арест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опроса подозреваемого. Юн Сок Ёль обвиняется в даче указания службе охраны воспрепятствовать его аресту. Кроме того, 7 декабря он якобы распорядился удалить записи секретных телефонных разговоров с бывшим командующим силами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вак Чон Гыном, бывшим командующим обороной столицы Ли Чжин У, бывшим командующим военной контрразведкой Ё Ин Хёном и другими лицам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разговоры связаны с введением чрезвычайного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Как правило, след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меры, включающие арест, если лицо трижды не является на вызов без уважительных причин.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открыла Гражданскую приемную

24 июн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объявила о запуске «Гражданской приёмной» —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род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оздаваемого вместе» для сбора мнений граждан по вопрос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Он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онлайн, и с помощью Google Forms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обращения по всем актуальным темам: от экономики и соцсферы до политики, дипломат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 вопросы будут докладываться президенту Ли Чжэ Мёну. На обращения, вызывающие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или имеющие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езидент планирует отвечать лично. В пресс-релиз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да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отражает стрем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к открытому диалогу с народом, в котором заключается его управленческая философия.

RKI

Сеул начал подготовку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ое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с КНД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ступило к практической проработке шагов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2018 года, известного как "Соглашение 19 сентября".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представило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ланированию подробный сценарий по возобновлению действия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утраченного в период эскалации межкорей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Юн Сок Ёле.

Согласно появившимся в СМИ пояснениям, предложен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мер, нацеленных на создание более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Пхеньяном и устранен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воен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Среди предложенных мер - формирован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специальной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межкорейским военным переговора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оенной линии связи,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ка прямого телефонного канала между во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Юга и Севера - своего рода "горячей линии" между штабам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лагается возобновить работу совместн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замороженного с 2019 года, и поэтапно перейти от техн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к обсуждению более широких военных тем.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обороны прямо опирается на предвыборное обещ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 добиться сдержив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ерез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но при этом вести с ней диалог. "Сдерживание с опорой на силу должно сочетаться с попытками диалога, поиска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 подчеркив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оглашение "19 сентября", подписанное в 2018 году

Ли Чжэ Мён назначил ключевых министров в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23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обнародовал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ы глав 11 министерств. Наиболее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вызвали назначения глав МИД, миноборон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 три фигуры,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отражает курс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 смену парадигмы в управлении страной.

Чо Хён: кадровый дипломат, сторонник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РК предложен кадровый дипломат с почти полувековым стажем работы в ведомстве 68-летний Чо Хён. Он имеет репутацию эксперта в сфере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дипломатии.

Про него известно, что родился на юго-западе страны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Чолла, в Сеуле о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 Ёнс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литолог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а затем получил магистерские степени в Колумбий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ША) и в одном из париж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наук, а также степень PhD по политологии в Тулуз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лужбе Чо с 1979 года. Он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в ключевых сферах: торговля, экономика, энергетик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ал в миссиях в ООН, Индии, Австрии, занимал посты второго и первого вице-министра, а при Мун Чжэ Ине стал постоя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К при ООН. Его считают профессионалом, способным решать задачи как двусторонней, так и глоб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том числе по таким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темам, как торговля, энергетика и ближневосточный конфликт.

Чон Дон Ён: возвращение к "Солнечной политике" объединения

Выдвинутый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объединения 72-летний Чон Дон Ён очень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экспертам, занимающимся межкорей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Чон уже занимал этот пост в 2004-2005 годах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Но Му Хёне. Тогда он также возглавлял постоянный комитет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ывший тележурналист и ведущий MBC, Чон пришел в политику в 1996 году, стал самым молодым членом высшего партий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и в 2007 году баллотировался в президенты от либерального блока.

Он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и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политики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сыграл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запуск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эсоне и выстраивал прямые контакты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чиновниками для согласова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проектов.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Ли настроена на активные шаги в сторон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каналов общения. Стои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Чон Дон Ён может создать хороший тандем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

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Ли Чжон Соком. Последний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хороших знакомых и соратников Чона, разделяет его взгляды в отнош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экспертом по КНДР и настроен на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вязей Сеула с Пхеньяном.

Однако в 2023 году, после резкого ухуд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тороны объявили о его фактическом прекращении. Пхеньян тогда заявил, что "больше не связан" обязательствами, а Сеул предпринял симметричные меры.

План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коммуникации с Севером подтвердил и новый первый вице-министр объединения Ким Нам Чжон, официально вступивший в должность в понедельник 23 июня. В своей инаугурационной речи он заявил, что процесс "размотки клубка" межкорейских проблем следует начинать с малого -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каналов связи, построения доверия и избегания поспешности. "Мир дороже войны, насколько бы дорого он ни стоил", - напомнил он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а Ли, сделав акцент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шаг за шагом"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конструктивному диалогу с Пхеньян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се каналы межкорейской связи, включая военную горячую линию 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ый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й центр, остаются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заблокированными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ператоры продолжают делать ежедневные попытки дозвона, но ответов нет с апреля 2023 года.

Как подчеркивают в Сеу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ое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2018 г.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готовности Пхеньяна к встречным шагам и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поэтап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Кандидатура 64-летнего Ан Гю Бэка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удивила многих. Если он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 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гражданским главой ведомства за последние 64 года. "Смелое решение - назначить философ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журналиста по профессии и политика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 осторожно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назначение один из местных политологов.

В прошлом выпускник философ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Сонгюнг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ула, журналист Ан имеет очень богатый опыт работы депутатом парламента. Он пять раз становился народным избранником от нынешней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прочем назвать его абсолютно чуждым военной сфере было бы неверным. Он был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парламента и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партий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вопросам обороны. Ан занимался улучшением условий службы в армии, поддерж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роведением парламентских расследований, включая дело о планах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по введению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Его назначение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выполнение предвыборного обещания Ли Чжэ Мёна передать управление Минобороны гражданс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Что касается остальных назначений на должности министров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 то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стремление сделать начальниками тех, кто уже давно в отрасли и является экспертом профильной сферы. Кандидатом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ИТ стал Пэ Гён Хун, глав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LG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етеранов возглавит Квон О Ыль,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и вице-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возглавит Ким Сон Хван, депутат от Демпартии. Женскую и семейную политику поручено возглавить Кан Сон У, также действующему депутату.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морских дел и рыболовства возглавит Чон Чжэ Су. Кандидатом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тала Хан Сон Сук, бывший CEO компании Naver.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доверено Ким Ён Хуну, бывшему главе федерации профсоюзов. Пост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хранен за Сон Ми Рён. Руководи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офиса назначен Юн Чхан Рёль, ранее занимавший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ы этого же ведом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Стартовал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ект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званного помочь защитникам вернуться в мирную жизнь и построить карьеру. 55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егодня приступили к обучению. С каждым из них лично пообщается губернатор,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в какой сфере и направлении боец сможе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и как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смогут помочь ему на этом пути.

Засе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чалось с чествования героев, вернувшихся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начинающих учебу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пожелал успехов в учебе и дальнейшего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 Участники и ветераны СВО — это новая элита. Вы делом доказали, что готовы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отстаивать интересы Родины. И наша задача — помочь вам найти себя в мирной жизн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Ребята, считаю, что вы должны выходить на ведущие позиции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 бизнесе,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оюзах, возглавлять предприятия,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Мы будем планомерно готовить вас к этой работе,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стретится с каждым «герое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 первой встрече собрались бойцы, которые хотят связа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 сферой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обсудили карьерные планы, которые формируются для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программы.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это «не раздача должностей, а векто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Ярослав Пеленков ушел на СВО добровольцем. Служил в разведроту, получил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опыт в условия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домой работает инженером в «Водоканале» в Холмске.

— Себя я в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будущем не вижу. Я строитель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но мне ближе иде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человеческих душ,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людьми. Я разделяю идеи казачества и православной культуры. Есть желание работать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Как мы воспитаем детей, таким и будет наше будущее. Хорошо, что программа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и мечты,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ом проекта Ярослав Пеленков.

— Нам нужны люди, которые душой болеют за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У нас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православная гимназия. Если вы хотите посвятить свою жизнь этой линии, нужно получить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 базе высшего вы сможете сделать это за 2,5 года. Но параллельно найдем для вас возможности работать с молодежью, получать и зарабатывать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в этой сфере, — отв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воей историей поделился и Александр Пашук. С началом мобилизации отправился на защиту рубежей Родины. В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командира взвод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угледар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осле ранения был демобилизован. В мирной жизни нашел себя в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ейчас участник СВО преподает военное дело в школе №2 Долинска.

— Я узнал о программе от кураторов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и решил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Опыт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у меня имеется. Я был старшим инструктор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стрелкового взвода. В подчинении находилось 30 человек. Рад, что прошел на обучение. Хочу получи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тоже, так как у нас будет и практика. Хотелось бы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именно в управлен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учиться, взять все самое полезное и продвигать в своей работе, помогая людям, — поделился участник проекта Александр Пашук.

Его карьерный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уть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п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В ряде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же ввели такие став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делена на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ветеранов СВО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предусмотрен курс по основ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Школ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Выпускники смогут работать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За каждым героем закреплен опытный наставник из числ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ысшего звена. Они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бойцам получ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чтобы войти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со средни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займется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тераны СВО смогут освоить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ки педагогов и дру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регионе.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последующе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урса «Военное дело»,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восьми школах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помним, программа «Геро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няли почти 450 человек.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ого отбора,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зачислены 55 человек — как уволенных с военной службы, так и действующ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Еще 30 действующ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пали в резерв.

Защитники, которые не прошли в основно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им предложат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арьерные тре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ровнем образования, компетенций и опыта рабо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ся VI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3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VI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на сцене перед зда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обрат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нова встречает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подарит зрителям две недели сцен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К нам приех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еатров со всего округа,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вои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 нас появился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ервых студентов набираем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Все это — для будущего региона, чтобы таких ярких и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событий становилось больш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л показ музыкального спектакля «Гамлет Story» с участием знаменитых актеров Сергея Чонишвили, Алексея Кравченко и Сергея Шнырева. Спектакль, созданный режиссером Наталией Семеновой, объединил классические строки Уильяма Шекспира с поэзией Иосифа Бродского, Давида Самойлова, Арсения Тарковского, Бахыта Кенжеева и Бориса Рыжего. Еще одно действующее лицо спектакля — ансамбль «4'33». Действие разворачивалось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трех измерениях — на сцене, в музыке и в кино. На огромном экране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сюжет о человеке, задавшем себе однажды этот сакраментальный вопрос — «Быть или не бы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имает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 второй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граммы —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Ф,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еатра Наций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3 июня по 5 июля.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строва увидят не только 10 лучших спектаклей театров ДФО, которые отобрал экспертный совет фестиваля, но и постановки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театров.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будет открыт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ни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лекции от ведущих театральных критиков, известных театроведов,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еатров и признанных мастеров сцен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мастер-классам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кукол как сценическ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основам плас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методике «Селфдрамы».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ежиссер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посвященной редко инсценированны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А.П. Чехов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пытных режиссеров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артист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атров создадут оригинальные постанов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зрителям и экспертам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дни фестиваля.

Оформление инвалидности,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и реабилитац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очередную встречу с пациентам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радиционно встретился с пациентами, имеющими серьезные нарушения здоровья. На встрече сахалинцы подняли ряд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в частност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льготных лекарств, оформления инвалидности и прохождению реабилитаци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алентина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борется с артрозом. Несмотря на длительное лечен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добиться не удалось. Теперь женщине необходима сложная операция по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ю коленных суставов, однако из-за сопутствующих заболеваний есть целый ряд сложностей.

— 8 лет я страдаю артрозом 3 степени. Лечилась и в санаториях, и в больницах, — толку ноль. В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и мне отказывают из-за лишнего веса, инвалидность не ставят, но у меня ведь еще и диабет. Лекарство, которое нужно именно мне, сл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аптеке. Но оно мне подходит, и аналог я не хочу,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женщину возьмет на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главный врач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

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Ефимов. Вместе с ортопедами врачи определят оптимальную траекторию по проведению операции и дальнейшему лечению, после чего оформят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Лекарство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ят сегодня же.

— М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жить дальше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ью и операцию делать надо! Ставьте в план, готовьте к операции, дальше оформляйте инвалидность и предоставляйте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Лекарства, которые не выдали вовремя, уже сегодня ждет в аптеке.

— Оформление инвалидности будет сразу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Главврач сейчас готовит документы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пациентки,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риски из-за большого вес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до решать как кардинально снизить вес. Задачу перед ортопедами ставят,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перацию и не затягивать. По поводу препаратов, есть аналоги, но пациент просит именно определенн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Есть сложности с поставками, но вопрос мы решаем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В рамках стационара будет подобрана оптимальная терапи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Мама юного сахалинца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мощью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с прохождением реабилитации для ее четырехлетнего сына. Мальчик имеет задержку в развитии, из-за чег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говорит. В то же время, специалисты не ставят ребенку инвалидность, из-за чего он не может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центрах.

— Нам нужна инвалидность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сына. Ребенку почти 4 года, он почти не говорит. У него скудный словарный запас — меньше 15 слов. Диагнозы ставят тоже разные, говорят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задержка реч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нужно еще провести несколько исследований, чтобы точно установить причину. Хотелось 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ю, мы ни от чего не отказываемся. Нам важно, чтобы ребенок реабилитировался и жил полноценной жизнью, школа не за горами,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мальчика.

— Инвалидность надо оформлять. У ребенка тогда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асть в санаторий,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техниче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ужно сейчас выработать план, предоставьте мальчику дневной стационар, направьте в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если нужно, отправьте на лечение за пределы. Важно, чтобы ребенок вышел во взрослую жизнь и мог 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ый образ жизн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на женщина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мощью для своей мамы,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инвалидом 2 группы. Семья желает приобре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калоприемники при помощи электрон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однако не с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из-за технических сложностей. Кроме того, женщина также пожаловалась на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алоприемники, но они не удобные, очень толстый материал. Хотели куп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е, что подходят, но не смогли активировать электронный сертификат. С лекарствами тоже есть сложности, не всегда они есть в аптеке, постоянно задерживают выдачу, — отметила сахалинка.

— Обеспечьте женщину всеми материалами, которые нужны. Важно, чтобы пациенты не испытывали дискомфорта. Сертификат как раз для того и предназначен, чтобы с поддержкой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то,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На счет лекарств, каждый пациент и каждый препарат находится под моим личным контролем. Это моя задача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Все лекар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течение 5 дней. Если что-то не выдали, вопросом займется провизор здоровья, который у вас есть, — отв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пациентк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лично примет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Сергей Старцев. Для женщины организуют дообследование и возьмут необходимые анализы.

Наконец, еще один пациент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просил помощи в повторном оформлении инвалидности. С 2018 года ему была назначена 2 группа инвалидности по потере зрения, однако в 2023 году срок инвалидности закончился, а документы были утеряны в Приморье.

— Инвалидность закончилась, документы потеряли. Два года бьюсь, не дают снова. Правый глаз не видит, а левый только на 12%. Мне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сменили хрусталик, сначала нарадоваться не мог, а потом все опять ухудшилось, — рассказал мужчина.

Пациента так же возьмет на лич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главный врач центральной город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Ефимов.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обследования будет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повтор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пециалисты сделают запрос в Приморье, после чего займутся оформлением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 Верните зрение человеку, готовьте к повторной операции, — подытож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재외동포청 업무보고 개최

재외동포청,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 이행계획 보고 흥현익 외교안보분과장,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신장 및 보호 위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 당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흥현익)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동포정책 현안과 향후 이행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위원 및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 정책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재외동포청은 신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동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통합과 성장’을 목표로 ①동포사회 핵심민원 적극 대응 ②동포역량을 활용한 민생경제 회복 기여 ③역사적 현안·희생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국내체류 동포 전담조직 신설 △동포사회와의 실질적 소통과 협력 등을 위한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된 이행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흥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철수 한국 폴리텍 이사장, 사할린동포 재학생 간담회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이 지난 20일 한국 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이창열)에 방문, 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과정 재학생과 간담회(사진)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9일 사할린동포 43명으로 개강한 이주배경구직자 직업교육과정 재학생 대표단 간담회를 통해 재학생이 느낀 교육과정의 장·단점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어 수업시간 확대 ▷다양한 직종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 이사장은 한국어 수업시간 확대 즉각 적용 등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검토를 지시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이사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있을만큼 사할린동포의 국내적응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사할린동포의 국내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신문)

2025 내가 한국바로알리기 주인공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 교육자료(외국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및 개발 제안

※ 한국이해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한 자료를 의미하며,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aks.ac.kr> → 출판 자료) 자료 > 한국이해자료)

응모 자격 외국인, 재외국민

제출 방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제출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 제출 분량 A4 3매 내외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aks.ac.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양식만 접수함)

사상 내역

- 최우수상 |2| 외교부·교육부 장관 상훈 및 60만원 상당의 상품
- 우수상 |4|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상훈 및 4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6| 국제교류처장 상훈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접수 기간 2025. 6. 1.(토) ~ 7. 31.(수), 18:00

※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접수기간 경과 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결과 발표 2025. 9. 25.(수) (예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및 입상자 개별 통지

@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 E-mail : highspirit@aks.ac.kr

※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E-mail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후원



교육부



외교부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СахалинТех начнут заселять в август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тудгородка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Уже с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там с комфортом разместятся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абот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вышли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Фасад на первом корпусе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 на втором и третьем – облицовка завершается. Основные силы сейчас брошены на внутреннюю отделку помещений – укладку керамогранита и оштукатуривание стен. Также продолжается монтаж электрических сетей, начал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Подрядчик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с просьбой посодействовать в ускорении доставки материалов на Сахалин.

– У нас задерживаются натяжные потолки, слабото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граждение. Часть материалов находятся в Москве, часть – в Красноярске. Просим вас, чтобы нас поставили в приоритет. По технике и людям у нас проблем нет. На площадке ежедневно находятся 400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техни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Сфера» Сергей Шемпелев.

– Все, что нужно, мы доставим самолетом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сем, чем необходимо, поможем, – отв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Этот объект – важнейший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олжны заселиться в современ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отставания от графика! Проводите планерки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каждый день. Студгородок, в любом случае, будем вводить очередями. Заселение будет идти по корпусам и начнется уже в августе.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на 1500 мест – один из объектов перед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В каждом жилом блоке будет две комнаты, санузел, душевая и кухня-ни-

ша. Три корпуса объединит стилобат, где разместятся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ресторан, фитнес-цен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и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и, прачечная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коворкинг. В перспективе в студгородке обустроят детский сад с группами присмотра за детьми.

Напомни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араллельно с возведением студгородк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Единновременно здесь будут учиться 2,5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Сдать НОЦ долж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вартир детям сиротам возьмут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в тр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засед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жилья детям-сиротам и детям, оставшим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есмотря на положительную динамику по своевременному приобретению квартир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жильем, сразу тр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не смог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купить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жиль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итуацию возьмут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января 2025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живало 822 человек,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нуждающихся в обеспечении жил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Потребность в жилых помещениях на начало года составляла 263 квартир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 247.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жилищный фонд формиру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приобретения квартир на первичном и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а также путем возмещения стоимости

или ремонта пустующих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жильем детей-сирот и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 бюджет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динамике мы приобрели 86 помещений, 14 находятся в стадии оформления. В сравнении с 2024 годом показатель выше на 5%,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Тем не менее, в тр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возникли сложности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жилья. В Куриль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ес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 32 квартирах,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куплены – только 2.

– Из 28 квартир у нас приобретены 2. Остальные размещены на площадке по закупкам. Также мы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овели встречу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иэлторских компаний, озвучили свою потребность, ждем заявок от них на площадк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Казанцева.

–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 Дети-сироты начинают жизнь, становя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Средства на эти цели есть, квартиры не куплены. Исправляйте свои ошибки, иначе в конце года мы придем с проверкой и привлечем к ней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е органы. Всем райо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красной зоне, замеча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жду решения, такого быть не должно. Каждый ребенок, оказавшийся на попеч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а,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квартиру,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все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е переехали 243 ребят из числа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проходи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редства выделяются в том числ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есомую часть выставки составляют работы мастерицы Екатерины Сайгушкиной — вазы, декоративные тарелки. Такж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очаровательных си-вучей, фигуру ангела и объемные Быковские пороги, помещенные в металлическую конструкцию. Творения Екатерины легкие, воздушные, будто дышащие, как жи-вые существа.

Помимо изделий из глины, на выставке «Грани хрупкого» присутствую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картины, ил-люстрации, украшения, аппликации.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из самых разных материалов: шерстяные нити, расписанная рыба кожа, дерево, бисер.

Знакомые образы маяков, животных, растений со-седствуют с творениями, вдохновленными сказаниям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тихами Анжели Мувчик и сказка-ми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Все они объединены любовью к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е и природе.

Выставка расположена на цокольном этаже «Мая-ка».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удивите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кера-мистов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о 27 июля каждый день, кроме понедельника.

사할린, 밀렵꾼들 부세 석호 호수에서 4,500톤의 해삼 채취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두 명의 밀렵꾼이 기소돼 재판을 받 았다. 이들은 부세 석호 호수 바닥에서 불법적으로 해삼을 채 취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현지 지역 수비대가 이 밀렵꾼들 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지방법원의 보도에 따르면 3명의 사할린 주민들은 지난 여름부터 불법적으로 해산물 채취에 나섰다고 전했다.

밀렵꾼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한 명은 잠수장비를 갖추고 해삼 채취에 들어갔고, 둘째는 배에 채취한 해삼을 싣고 해안 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으며, 셋째는 상황을 감시했다.

지역 수비대는 마침 4,665마리의 해삼을 채취했을 때 사

할린 밀렵꾼들은 체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채취한 해삼은 금 액으로 치면 630만 루블리가 넘었고, 잡힌 해삼들은 자연 서 식지로 다시 방류하여 피해를 막았다.

법원은 두 명의 밀렵꾼에 대한 재판 판결로 한 사람에게 는 5만 루블리를, 다른 사람에게는 4만 루블리를 선고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браконьеры собрали со дна лагуны Буссе свыше 4,5 тысячи трепанг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ынесли приговор двум участникам браконьерской группы, которые незаконно собирали трепангов на дне лагуны Буссе. Мужчин за-держали на месте пограничник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айонного суда сообщили, что трое островитян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незаконную добычу мор-ских деликатесов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и заранее распределили роли: один в водолаз-ном снаряжении добывал, второй на лодке перевозил улов до берега и складировал в мешки, а третий на-блюдал за обстановкой.

Пограничники задержали сахалинцев, когда они успели выловить 4 665 экземпляров. Ущерб составил свыше 6,3 млн рублей, но его предотвратили - весь улов выпустили в естественную среду обитания.

В суде сообщили о приговоре в отношении двух лиц. Одному назнач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50 тысяч ру-блей, другому - 40 тысяч рублей.

슈퍼크로스 주 선수권대회 1차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사할린주 슈퍼크로스 종목 선수권대회 경기가 9년간의 오랜 휴지기간을 지나 재개된 가운데 이에 70여 명이 참가했 다. 경기가 펼쳐지는 날 먹구름과 짙은 이슬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들은 여러 부문에서 경기를 마칠 준비가 되어있 었다. 사할린주 모토사이클 연맹의 알렉세이 스모로진 회장은 "9년 만에 처음 슈퍼크로스 종목 선수권대회 1차전이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이 경기가 매 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출발선에는 모터사이클 스포츠의 노련한 선수들

과 가장 어린 참가자도 포함된 가운데 안젤리나 키류히나 는 8세로 벌써 1년째 이 스포츠 종목을 훈련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원 덕에 자신의 해당 부문에서 이번에 2위를 차지했다.

안젤리나 키류히나는 " 온 가족이 내가 이기도록 나를 지 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항상 4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마침내 2위를 차지했어요."라며 기쁨의 소감을 전했다.

2차 경기는 돌린스크 지역에서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 우수 선수들을 뽑아 팀을 구성하여 내년에 극동 지역 단계로 열리는 경기에 사할린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первый этап чемпионата и первенства области по суперкроссу

Около 70 участников борется за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уперкроссу. На Сахалине их проводят после долгого перерыва в 9 лет. Этому событию не помешали даже тучи и накрапываю-щий дождь,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готовы закончить заезд в любых условиях.

«Первый этап чемпионата и первенства по супер-кросс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одим впервые за 9 лет. Для гонщиков наших это событие очень значимое»,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мотоциклетног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Смородин.

На стартовой линии как ветераны мотоциклетного спорта, так и самые юные е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нгелине Кирюхиной 8 лет, спортом занимается уже год, и сегод-ня он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второго места в своей катего-рии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одных.

«В семье меня всегда поддерживают, кричат, чтобы я выиграла. У меня сначала всегда четвертые места были, а сейчас я вторая приехала уже наконец-то», — поделилась Ангелина Кирюхина.

Второй этап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йдет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же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К концу года среди луч-ших участников соберут команду,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ледующей весно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од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 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